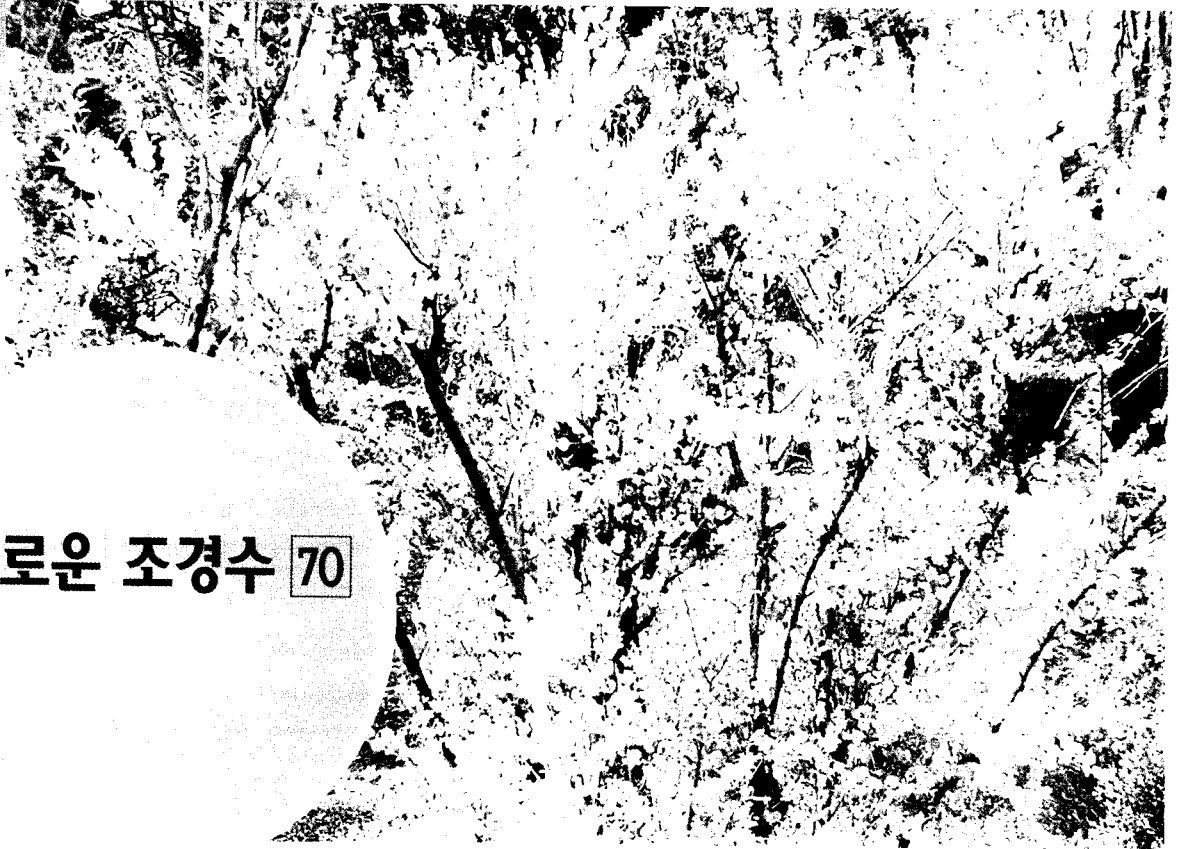


새로운 조경수 70



▲만첩꽃또기 개화전경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1. 종류와 생육특성

꽃또기는 앵도나무아과(Prunoideae)의 벚나무속(Prunus)에 속하며 우리나라 함경북도 회령, 무산지역의 표고 100~400m되는 양지바른 산록에 자생하고, 지리적으로는 중국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내한력(耐寒力), 내염력(耐盐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건력(耐乾力)은 강한 편이지만 내음력(耐陰力)은 약한 편이다. 그리고 지제부(地際部)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자라 올라와 둥근 수형을 만들고, 꽃은 잎이 피기전에 피며 꽃이 여러겹으로 피는 것을 만첩꽃또기라고 한다. 생육적지는 비옥적윤(肥沃適潤)한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건조한 양지에서도 잘 자란다.

〈표 1〉 풀또기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풀 또 기	<i>Prunus triloba var. truncata</i> KAM.	オヒコウモノ
만첩풀또기	<i>Prunus triloba var. petzoldii</i> BAILEY.	ヤエオヒコウモノ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풀또기는 홑꽃으로 지금까지 조경수로 활용된 일이 거의 없고 현재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겹꽃인 만첩풀또기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봄에 잎이 피기 전에 분홍색 겹꽃이 나무전체를 뒤덮고 있는 만첩풀또기의 자태는 봄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찬

란하고 화려하여 화사한 봄나들이의 황홀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하게 한다. 그리고 지체부에서부터 여러개의 줄기가 자라서 한 개의 포기를 형성하고 공모양의 둥근수형은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를 더해준다. 생육적지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잘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만끽하려면 양지에 심어야 한다.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풀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3m 정도 자람 • 가지는 적갈색 또는 자갈색이며, 표면에 윤기(潤氣)가 남 • 잎은 호생하며, 도난형(倒卵形)으로 길이가 3~6m임 • 잎의 뒷면은 회록색이고 엽맥을 따라 흰털이 밀생함 • 잎가장자리에 이중으로 된 날카로운 톱니가 있음 • 잎의 끝은 뾰족하고 엽저(葉底)는 점첨각(漸尖脚)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5mm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분홍색 홑꽃으로 4~5월에 잎이 피기전에 피 • 꽃의 지름은 2.0~2.5cm로 1~2개씩 액생(腋生)함 • 꽃받침통은 중형(鍾形)이고 열편(裂片)은 난형(卵形)임 • 수술은 30개정도이고 자방(子房)에 털이 있음 • 열매는 핵과(核果)로 8월에 붉게 익음 • 열매는 난상원형(卵狀圓形)이며 열매의 길이는 1.0~1.5cm 정도로 연한 갈색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회령, 무산 • 표고 100~400m • 중국에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옥하고 적운한 토양 • 양지바른 산록부
만첩풀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 잎의 특징은 풀또기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잎이 여러 겹으로 피는 겹꽃이며 열매가 달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